

9세기 전반 新羅와 日本의 大宰府交易*

조 이 옥**

- I. 머리말
- II. 신라 상인의 大宰府 出入과 그 계기
- III. 張保皐 선단의 대일교역과 大宰府의 교역관리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글은 9세기 전반 신라인들이 일본 北九州의 大宰府에 출입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831년 太政官符를 계기로 정비된 大宰府의 관리교역체제에서 張保皐로 대표되는 신라 상인이 행한 교역의 형태와 그 성격을 검토한 것이다. ‘官司先買의 행사와 沽價의 관리’라는 관리교역체제에서 장보고 선단이 신고 온 다량의 화물은 조정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정하는 檢校 절차가 끝나면 민간과의 통상교역은 비교적 자유로운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신라 상인과 민간의 교역을 둘러싼 국가 관리 실무를 현지 책임자인 大宰府의 관인이 담당하는 교역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 F-2019S1A5B5A07085010).

**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 joyok82@daum.net

방식은 여태껏 방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역 형태로서 주목을 끈다.

기왕의 선행 연구에서 9세기 신라와 일본의 교역은 사교역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있다. 특히 장보고 선단의 대일교역활동에 대해서는 사교역의 범주로 인식하는 것이 학계의 매우 보편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831년 태정관부를 계기로 장보고 휘하의 신라 상인과 민간의 교역은 北九州 일대를 관할하던 大宰府의 관리·감독하에 이뤄지고 있다. 당시 일본은 대외 교역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어느 정도 관철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개인에 의한 사무역이 자유로이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大宰府의 관리교역체제에 관한 이해는 그 동안 사교역의 범주로 인식해 왔던 장보고 선단의 대일교역의 형태와 그 성격을 밝히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교역의 형태면에서 기존 연구 성과에서 간과하고 있던 관리교역 형태는 기왕의 공·사무역의 양분법에 매몰되어 있는 한계를 넘어 설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신라상인, 재당신라상인, 대재부 교역, 장보고, 청해진, 사무역, 선매권, 관리교역체제

I. 머리말

9세기 초부터 신라인과 재당신라인들은 北九州의 大宰府를 자주 왕래하였는데, 大宰府는 당시 일본 대외 교역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張保皋 휘하의 신라 상인과 민간의 교역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려진 831년 太政官符를 계기로 신라 상인은 大宰府 관인의 관리·감독하에 교역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官司先買의 행사와 沽價의 관리'를 행하는 국가 관리 실무를 현지 책임자인 大宰府가 담당하는 방식은 여태껏 방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역 형태로서 주목을 끈다. 관리교역이라는 새로운 교역 형태는 張保皋로 대표되는 신라 상인이 행한 대일교역의 형태와 그 성격을 올바르게 구명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찍이 일본 학계의 森克己는 일·송 무역의 전사로서 9세기 초엽 이후에 전개되는 새로운 형태의 교역활동을 근거로 해서 국가의 통제하에 외국 상인과 벌인 교역을 '大宰府貿易'이라고 규정하였다.¹⁾ 森克己의 연구 이래 일본 학계는 당·송 상인을 중심으로 大宰府의 관리교역체제와 관련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²⁾ 신라 상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당·송 상인에 비해 부차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다.³⁾ 한편 우리 학계의 경우 양국간에 이뤄진 大宰府교역에 대한 연구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⁴⁾ 특히 大宰府의 관리교역체제와 유기적

1) 森克己, 『新訂日宋貿易の研究』, 國學刊行會, 1975, 참조.

2) 일본 학계의 大宰府交易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森克己, 『新訂日宋貿易の研究』, 國學刊行會, 1975; 林呈蓉, 「大宰府貿易の再檢討」, 『海事史研究』 47, 1990; 田島公, 「大宰府鴻臚館の終焉」, 『日本史研究』 389, 1995; 山内晉次, 『奈良平安期の日本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2003; 吉川眞司, 「國際交易と古代日本」, 『7~10세기 동아시아 문물교류의 諸像』,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8 등.

3) 山崎雅稔, 「承和の變と大宰大貳藤原衡4起請」, 『歴史學研究』 751, 2001; 渡邊誠, 「承和・貞觀期の貿易政策と大宰府」, 『ヒストリア』 184, 2003; 田中史生, 「新羅人の交易活動と大宰府」, 『國際交易と古代日本』, 吉川弘文館, 2012.

4) 이성시 지음/김창식 옮김,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청년사, 1999; 李炳魯, 「장보고와 혼야노 미야다마로와의 교역에 관한 연구」, 『대외문물교류』 4, 2006; 조이옥, 「8세

으로 연결시켜 張保臯 선단이 행한 대일교역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장보고 선단에 의해 조직·편성된 신라 상인이 행한 대일교역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관리교역이라는 새로운 교역 형태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831년 太政官符를 계기로 정비된 大宰府의 관리교역체제에서 張保臯 휘하의 신라 상인이 행한 교역의 구체적 실상을 통해 대일교역의 형태와 그 성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9세기 초 신라인과 재당신라인들이 일본 대외교역의 중심지인 大宰府에 출입하게 된 배경과 그 역사적 계기에 대해 살펴 보고, 이를 토대로 관리교역체제에서 장보고 휘하의 신라 상단이 행한 교역 절차와 운영 실태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 대일교역의 성격을 새로이 구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9세기 전반 張保臯로 대표되는 신라 상인을 둘러싼 교역실무를 大宰府 관인이 담당하는 관리교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관부의 관리를 받지 않는 사교역과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교역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교역의 형태면에서 기존 연구 성과에서 간과하고 있던 관리교역은 기왕의 공·사무역의 양분법에 매몰되어 있는 한계를 넘어 설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 앞으로 관리교역이라는 새로운 교역 형태에 대한 이해는 신일간의 대외 교역뿐 아니라, 9세기 동아시아 교역사 연구를 진전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II. 신라상인의 大宰府 出入과 그 계기

9세기 들어 신라는 심각한 사회적·정치적 모순으로 중앙조정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은 물론이거니와 연이은 자연 재해로 초적까지 등장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심화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기 신라와 일본의 대재부 교역, 『신라사학보』 29, 2013; 조이옥, 「8~9세기 신라와 일본의 외교와 대재부교역의 성격변화」, 『신라문화』 48, 2016 등.

가운데 대다수 농민들의 처지는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궁핍한 농민들 가운데 자활의 길을 찾아서 국외로 유망하는 농민의 수가 증가하였다.

816년에는 기근이 들어 신라인 170여 명이 배를 타고 당의 浙東지역까지 가서 식량을 구걸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⁵⁾ 817년에는 기근이 심하게 들어 굶어 죽는 사람이 수없이 발생하였다. 또한 일본측 문헌에도 신라 유민의 표창기사를 빈번히 볼수 있다. 특히 弘仁년간(810~823)부터 天長초년(824~833)까지 신라 유민의 귀화 기사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⁶⁾ 일본이 신라 귀화인을 마지막으로 받아들인 824년까지 일본에 건너간 신라인이 총 1,03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⁷⁾ 일본 정사에서 확인되는 숫자가 이 정도라면, 실제 일본에 건너간 신라인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는 원성왕대(784~798)에서 헌덕왕대(809~825)에 걸쳐 기근과 흉년으로 사회적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교역을 위해 일본 서부지역을 왕복하는 신라 상인의 존재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8세기 후반 이후 정치적 불안으로 인하여 지방통치체제가 이완되자, 종래에는 금지되었던 사교역이 크게 성행하면서 민간 상인이 주도하는 대외 교역이 서·남해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日本紀略』에 보면 814년부터 824년까지 귀화 혹은 유래가 아닌 신라 상인이 일본에 10여 차례 來航한 기록이 보이는데, 신라 상인이 일본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814년(弘仁5)이다.

즉 『日本紀略』(전편 권14) 『日本後紀』(권24)에 보면 814년(弘仁5) ‘신라 상인 31인이 長門國 豊浦郡에 漂着했다⁸⁾’는 기사가 그것이다. 그

5) 『舊唐書』卷199上, 列傳 149上, 東夷 新羅傳, “新羅飢其衆一百七十餘人求食於浙東”

6) 『日本後紀』弘仁 5년 8월 丙寅條; 『日本紀略』弘仁 7년 10월 甲辰條, 弘仁 8년 2월 乙巳條, 同年4月 辛亥條, 弘仁 11年 丙戌條, 弘仁 13年 7월 乙巳條; 『類聚國史』卷15 9, 天長元年 3月 丁丑條 同年 5月 己未條; 『日本三代實錄』貞觀 12年 4月條 所引天長元年 8월 20일格.

7) 奥村佳紀, 「新羅人の來航について」, 『駒澤史學』 18, 1971, 117~123쪽; 左伯有清, 「9世紀の日本と朝鮮~來日新羅人の動向をめぐって」, 『歴史學研究』 287, 1964, 8쪽.

8) 『日本後紀』권24; 『日本紀略』전편 권14, 弘仁 5년(814) 10월 丙辰條.

후 민간 상인들이 줄을 이어 일본 서부지역에 도착했다. 818년(弘仁9) 정월에는 상인으로 보이는 신라인 張春 등 14인이 일본 大宰府에 와서 나귀 4필을 바쳤고,⁹⁾ 820년(弘仁11) 5월에는 신라인 李長行 등이 와서 검은 양 2두와 흰 양 4두, 산양 거위 등을 진상하였다.¹⁰⁾ 아마도 이들 본국 신라인들은 통상교역을 목적으로 일본을 왕래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본국 뿐만 아니라, 당의 양자강 하류 지역인 명주·양주 등 강남에 형성된 신라인 사회를 중심으로 해상활동에 종사하던 재당 신라인들도 일찍부터 일·당간을 왕래하면서 교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 천태종 승려 圓仁(814~892)이 당나라 유학생활을 기록한 『入唐求法巡禮行記』 開成 4년(839) 정월 8일조에 보면

가) 신라인 王請이 찾아와 서로 인사했다. 본국의 弘仁10년(819)에 出州國에 표착한 唐人 張覺濟 등과 同船한 사람이다. 표류의 이유를 물으니, “諸物을 교역하기 위해 여기(양주)를 떠나 바다로 나아갔다. 곧 惡風을 만나 남으로 표류하기를 3개월, 出州國에 표착했다. 그 張覺濟의 형제 두 사람은 배가 출발하려고 할 때 같이 도망하여 出州國에 머물렀다. 北出州國에서 북해를 따라 출발하여 好風을 만나 15일 만에 長門國에 표착했다”고 말했다. 일본어가 능통했다.¹¹⁾

라는 기사가 전하는데, 재당 신라인 王請일행이 양자강 하류지역인 양주에서 출발해 교역을 위해 일본을 왕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기사와 대응하는 기사가 『日本紀略』에 보이는데, ‘弘仁11년(820) 4월에는 唐人 李少貞 등 20여 인이 出羽國에 漂着하였다’라고 한 기사가 그것이다.¹²⁾ 『入唐求法巡禮行記』와 『日本紀略』 두 기사가 일 년의 차이는 있으나 내용으로 보아 王請은 李少貞 등과 함께 出羽國에 표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王請이 일본어에 능통한 것은 장기간 일

9) 『日本紀略』 전편 권14, 弘仁 9년(818) 正月 丁酉條.

10) 『日本紀略』 전편 권14, 弘仁 11년(820) 5月 甲辰條.

11)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권1, 開成 4년(839) 正月 8日條.

12) 『日本紀略』 전편 14, 弘仁 11년(820) 4월 戊戌條.

본에 체재하면서 일본인과 밀접한 교섭을 가졌다는 증거이다.¹³⁾

『日本紀略』에 李少貞은 唐人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唐人 李少貞은 張保臯의 암살 후에는 閩長の 부하가 되어 大宰府에 파견된 신라인 李少貞과 동일인이다.¹⁴⁾ 따라서 李少貞도 王請과 같은 재당신라인의 일원으로 그들이 같이 교역을 위해 일본 대외교역의 중심 무대가 된 大宰府에 파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본 문헌에 보면 814년 신라 상인은 長門國 豊浦港에 표착하였고, 재당신라인 왕청도 도중에 모진 바람으로 해난사고를 당해 長門國 보다 북쪽에 위치한 出羽國에 표류하거나 표착하였다. 특히 당의 강남에 기반을 둔 재당 신라인들은 신라 연안을 통과하는 북로 대신에 東支那海斜斷航路인 南道路를 이용해 일본을 왕래하였는데, 세찬 바람과 험한 파도로 인하여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표류·표착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다.

9세기 초 일·당간을 왕래하던 재당신라인들이 北九州에 위치한 筑前國 및 다자이후 관인과의 교섭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 會昌 5년(845) 9월 22일조 기사에 보면 ‘筑前國太守 須井宮이 弘仁6년(815)에 大宰府에 내향한 신라승 이신혜에 대해 哀恤하였다’라고 사례가 있다. 이는 이신혜가 大宰府에 장기간 체류하는 동안 현지 筑前國太守인 須井宮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일본학자 田中史生도 지적하고 있듯이 筑前國太守가 大宰府를 기반으로 내향·재류하는 외국인의 실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것과 관계된다.¹⁵⁾

이미 일본열도 최남단에 위치한 北九州의 筑前國 및 大宰府 관내에

13) 이병로, 「九世紀 초기의 「環시나海 무역권」의 고찰-장보고와 對日교역을 중심으로-」, 『일본학지』 15, 1995, 16쪽.

14) 『續日本後紀』 권11, 承和 9년(842) 正月 乙巳條, “新羅人李少貞等四十人到着筑紫大津(中略) 公卿議曰 少貞曾是寶高之臣 今則閩丈之使 彼新羅人 其情不遜 所通消息 彼此不定(下略)”

15) 田中史生, 「承和前期後の國際貿易-張保臯·文田宮室宮麻呂·円仁とその周邊」, 『入唐求法巡禮行記』に關する文獻校定及基礎的研究, 科研報告書, 2005.

거주하고 있는 재당신라인들은 筑前國太守와 깊은 교류가 있었으며, 筑前太守뿐 아니라 그 상관인 筑前國司 혹은 나아가 大宰府의 요인과도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¹⁶⁾ 신라인과 재당신라인의 교역활동이 빈번해지면서 그들의 소비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교류의 바탕 위에 신라인들은 일본조정 of 목인하에 왕신가를 비롯한 관내관인들과 교역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짐작된다.¹⁷⁾ 일본 최초의 기항지인 大宰府가 대외교역의 중심지로 부상한 계기는 8세기 중엽 외교형식을 둘러싼 신라와 일본의 외교적 마찰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大宰府가 위치한 筑前國의 博多津은 옛날부터 한반도와 중국 대륙과의 대외 교섭의 문호이자 관문 역할을 하는 요충지였다. 특히 白江口 전투 패전 후 동아시아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본 조정은 이곳에 大宰府라는 특별 관사를 설치하고 군사적·방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대외교섭 실무도 부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8세기 들어 일본율령제가 정비되면서 大宰府는 九州일대의 9國 3島를 총괄할 정도로 큰 권한을 가진 최대의 광역 행정관사가 되었으며, 신라 사절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공식 기구로 기능하였다.

8세기 일본 율령제하에서 공간적으로 교역의 장은 기내의 京에 한정하였고, 지방에 있어 대외교역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¹⁸⁾ 그러나 8세기 중엽 이래 신라와 일본은 의례상의 문제로 외교적 마찰을 야기하는 가운데 대외 교역의 장이 기내의 京에서 당시 대신라교섭의 창구로서 기능한 大宰府로 이동하였다.¹⁹⁾ 외교형식을

16) 당시 大宰府의 大貳는 小野岑守로 弘仁 3년(822)부터 天長 4년(827)까지 大貳로서 일하였다. 그의 재임 중에 재당신라인의 선박이 大宰府의 외항인 博多津에 來航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과의 교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佐白有清, 『最後の遣唐使』 講談社, 1978, 150~151쪽).

17) 渡邊誠, 「承和・貞觀期の貿易政策と大宰府」, 『ヒストリア』 184, 2003, 20~21쪽.

18) 「養老關市令」 7, 蕃客條; 8, 官司條; 『類聚三代格』 養老雜律.

19) 조이옥, 「8세기 신라와 일본의 대재부 교역」, 『新羅史學報』 29, 2013, 361쪽. 한편 李成市는 8세기 중엽 국제정세의 변화 즉 동아시아의 긴장완화에서 大宰府交易의

둘러싸고 신·일간에 외교적 갈등을 경험하는 가운데 대외 교역의 장이 大宰府 현지로 옮겨짐에 따라 빈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조공 형식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와 방법으로 교역이 행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8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대외업무를 관장하던 大宰府 현지에서 신라 사절과 평성경의 일부 특권층 사이에 대규모의 교역이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가 『續日本紀』 神護景雲 2년(768) 10월 甲子條에 전하고 있어 주목할 만 하다.

나) 左右大臣藤原朝臣永手, 吉備朝臣眞備에게 大宰綿 각 2만屯, 大納言 諱와 弓削御淨朝臣清人에게 각각 1만屯, 從2位文室眞人淨三에게 6천屯, 中務卿 從3位 文室眞人大市·式部卿 從3位石上朝臣宅嗣에게 4천屯, 正4位下 伊福部 女王에게 1천屯을 주어 新羅交關物을 사게 하였다. 庚午 二品井上內親王에게 大宰綿 일만屯을 내렸다.²⁰⁾

위의 기사는 768년 동10월 갑자·경오에 일본 조정이 左右大臣藤原永手 등 5위 이상 귀족들에게 大宰綿 8만 5천屯 이상을 지급해 신라교관물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서 大宰綿의 지급장소에 대해서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이 시기에는 외교적 마찰로 신라 사절이 일본에 와도 거의 입경하지 못하고 도착지인 大宰府에서 외교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당시 일본 조정은 신라와의 교역을 전제로 大宰府의 府庫에 축적된 大宰綿을 5위 이상 귀족층에게 지급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¹⁾ 신라 사절은 입경하지 않아도 체재가 보장되므로 현지에서 5위 이상 특권층을 상대로 한 통상교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료 나)에서 제시한 기사에 대해 일본의 선행 연구자들은 768년 당

계기를 찾고 있다.(이성시 지음/김창석 옮김,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청년사, 1999, 189~190쪽).

20) 『續日本紀』 권29, 神護景雲 2年 10月 甲子·庚午條.

21) 平野邦雄, 「大宰府の徵稅機構」, 『律令國家と貴族社會』, 吉川弘文館, 1969; 東野治之, 「鳥毛立女屏風下貼の研究」,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 塙書房, 1977, 205쪽.

시 신라 사절이 내향한 기사가 없는 점에 착안해 신라의 민간 상인과 평성경의 일부 특권층이 왕권 사이의 교역과 다른 새로운 형식과 방법의 교역이 大宰府에서 행해지는 상황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여기서 말하는 신라교관물은 신라 상인이 가지고 간 대일본교역품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²⁾ 이러한 견해는 위의 기사를 8세기 후반 단계에 신라 상인이 大宰府 현지에서 통상무역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근거로서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 문헌에 신라 상인이 처음 확인되는 것은 814년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는 9세기에 나타나는 신라 상인의 활동을 8세기 중엽까지 소급해서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²³⁾ 오히려 국가가 주도하고 관리하는 교역 통제 정책이 일정 부분 유지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위의 768년 사료는 일본 조정의 통제하에 신라의 공식 사절과 평성경의 특권층 사이에 행해진 교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음해인 769년 신라사절 金初正 등 187인이 土毛를 싣고 大宰府에 와서 장기간 체류하다가 귀국한 사례가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²⁴⁾

8세기 후반 신라가 일본과의 공식 국교를 단절하자, 양국간 공식 사절에 수반되는 공무역체제가 현저히 쇠퇴하였다. 이에 따라 신라의 민간 상인층을 비롯한 재당 신라인들이 신라 사절을 대신해 博多灣을 거쳐 大宰府로 모여 들었는데, 신라상인의 활동 공간은 大宰府 관내인 北九州 지역을 한계로 하여 그 이상 북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820년대 이곳을 찾은 외국 상선은 신라 본국과 재당신라인을 태운 선박이 유일

22) 石井正敏, 「八・九世紀の日羅關係」, 『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 吉川弘文館, 1985, 288~289쪽; 李成市, 앞의 책, 186~187쪽. 李成市는 8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수도를 중심으로 한 왕권 주도의 공무역이 주류였으나, 그 이후에는 大宰府를 중심으로 한 민간무역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京師交易에서 大宰府交易으로의 변화라고 했거니와 768년 교역은 9세기 대재부교역의 선구적 형태로 보았다.

23) 조이욱, 「8~9세기 신라와 일본의 외교와 대재부 교역의 성격 변화」, 『新羅文化』 48, 2016, 200쪽.

24) 『續日本紀』 권30, 稱徳天皇 神護景雲 3년(769) 11월 丙子條·寶龜 元年(770) 3월 丁卯條.

했다. 大宰府의 외항인 博多灣은 재당신라인이나 한반도에서 오는 선박들의 입출항과 상인층이 자유롭게 무역에 종사할 수 있는 사무역의 중심지로 번성하였다.

이 즈음 北九州 서북단에 위치한 大宰府 부근에는 신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신라인의 집단 거주 또는 이들과 거래하는 상인층이나 상권이 형성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²⁵⁾ 그리고 824년에는 張大使가 일본 大宰府에 왔다가 돌아갈 때 데리고 간 李信惠 역시 815년부터 8년 동안 大宰府에 체류하며 교역활동에 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²⁶⁾ 비록 기록에는 안 되었지만, 大宰府를 무대로 민간인들에 의한 통상교역이나 승려와 민간인들의 교류도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824년(天長 元年) 일본은 大宰府 관내에 머물며 교역에 종사하던 신라인을 陸奥의 空地로 배치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²⁷⁾ 이는 신라인이 주도하는 교역활동의 확대를 막으려는 조치로서 한 동안 일본 문헌에 신라 상인의 존재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후 신라인의 동향을 보면 어느 정도 신라인에 대한 처분은 효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한 동안 보이지 않던 신라 상인의 존재는 831년 일본 太政官이 내린 ‘應檢領新羅人交關物事’라는 官符에 다시 등장한다.

일본 조정은 828년 청해진 설치 이후 張保臯로 대표되는 신라 상인의 대일교역활동을 통제·규제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官符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부를 계기로 장보고가 조직·통합한 신라 상인은 여태껏 조정의 묵인하에 관인층을 비롯한 민간인과 행하던 교역 방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로 교역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주목된다. 9세기 전반 양국간 交易의 성격 변화와 관련해 大宰府를 무대로 전개되는 새로운 교역 방법과 형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5) 東野治之, 앞의 논문, 305쪽.

26) 『入唐求法巡禮行記』 권4, 會昌 5년(845) 9월 22日條.

27) 『日本三代實錄』貞觀 12년(870) 2月 20日條. 869년(貞觀11)에 발생한 신라 해적의 관선습격사건에 대해 이 사건의 관계자로 체포된 신라인 윤창 등과 大宰府 관내에 머무는 기타 신라인의 처분에 관한 格인데, 신라인을 ‘新舊’를 따지지 않고 陸奥 공한지로 옮겼지만, 이것은 天長 8년 8월 20일 格旨에 준한 조치라 하였다.

Ⅲ. 張保臯선단의 대일교역과 大宰府의 교역관리

주지하듯이 9세기 전반 신라는 중앙집권력이 약화되어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이완되는 등 정치적 혼란을 거듭하는 반면 대외적으로는 종전에 볼 수 없는 민간의 해상활동이 한층 활기를 띠면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특히 신라 흥덕왕(826~836)은 즉위 이래 개혁 정책을 수행하는 가운데 민간 상인이 주체가 되는 해상활동을 용인하려고 하는 실리적인 무역 진흥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흥덕왕릉비판에서 ‘貿易之人間이라 운운한 것은 흥덕왕 자신이 대외 교역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측면을 보여준다.

신라인의 해상활동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820년을 전후하여 산동반도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해적들이 신라인을 납치하여 노비로 파는 행위가 성행하였다.²⁸⁾ 무엇 보다 한반도 서해 연안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던 해적의 출현은 신라인의 해상활동과 해상교역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였다.²⁹⁾ 해적 소탕을 위해 신라 흥덕왕은 張保臯의 건의에 따라 청해에 진을 설치하고 그를 청해진 대사로 임명하였다.³⁰⁾ 신라 조정의 이러한 조치는 해적 소탕으로 서·남해의 제해권을 회복해 신라인의 해상활동을 통제·조정하는 등 해상교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보인다.³¹⁾

당시까지만 해도 신라에는 공무역인 외교 사절을 통한 무역거래기구

28) 『冊府元龜』 권42, 帝王部 仁慈 憲宗 元和 11년(816); 『唐會要』 권86, 奴婢 長慶 3년(823) 正月條.

29) 李基東, 「張保臯와 그의 海上王國」, 『張保臯의 新研究』, 완도문화원, 1985, 98~99쪽; 金文經, 『張保臯研究』, 연경문화사, 1997, 75~76쪽; 高慶錫, 「장보고 세력의 경제적 기반과 신라 서남해 지역」, 『한국고대사연구』 39, 2005, 226쪽.

30) 『三國史記』 권10, 흥덕왕 3년 4월조; 권44, 열전4 張保臯·鄭年; 『新唐書』 권145, 열전, 동이전 신라.

31) 청해진 설치 목적에 대해 서윤희는 그 이전까지 행정적으로 통제되지 않았던 서남해안의 섬들을 통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곳에 진을 설치했던 것이라고 추측하였다.(서윤희, 「淸海鎮大使 張保臯에 관한 연구-신라 왕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92, 2001, 15쪽).

는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었으나, 민간의 사무역을 수행할 체제는 그때까지 정비가 안 된 상태였다.³²⁾ 따라서 신라 흥덕왕은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張保臯를 청해진 대사로 임명해 해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적소탕과 함께 민간인들의 해상교역을 통제·조정하는 등 효과적인 사무역체제를 정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청해진 대사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부여받은 장보고는 해적을 소탕하고³³⁾ 서·남해 제해권을 회복하는 동시에 당의 산둥반도와 일본 博多灣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역망을 개척·장악하였다. 이로써 장보고는 해상교역의 중심지인 산둥반도의 登州를 근거지로 활동하던 재당 신라인 사회를 통합해 신라의 남쪽을 통과하는 새로운 교역망 속에 이들을 편제·결집시킬 수 있었고,³⁴⁾ 동시에 한반도 서·남해 군소해상세력을 그의 휘하에 조직화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당·신라·일본을 잇는 중계무역을 주도할 수 있었다.

특히 장보고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820년대 후반부터 사망하는 841년까지 일본과의 교역에서 구체적으로 거명된 사람은 단 한차례만을 제외하고는 장보고 휘하의 신라인들뿐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기 신라와 당나라에서 활동하던 신라 상인 대부분이 청해진 대사 장보고 휘하의 조직에 들어가 장보고 선단의 이름으로 일본과 교역을 전개하였음을 말해 준다.³⁵⁾ 그 결과 830년대 신라의 대일교역은 장보고 선단이라는 단일 창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지정학상 대외교통상의 요지인 청해는 당·일간 해상교통의 중계지점으로 항로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보급과 연락업무가 용이할 뿐 아

32) 민성규·최재수, 「당나라의 무역관리제도와 황해해상무역의 관리기구」, 김형근 편, 『해상왕 張保臯의 국제무역활동과 물류』,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1, 156쪽.

33) 『新唐書』卷145, 東夷傳 新羅, “自太和後(827~835), 海上, 無鬻新羅人者”

34) 이병로, 앞의 논문, 293쪽, 8세기 말부터 9세기 초기에 걸쳐 해상세력이 신라·당·일본을 포함하여 형성한 하나의 교역질서를 ‘環시나海무역권’으로 개념화하였다. 대체로 기왕의 선행 연구에서는 828년 청해진 설치 이래 장보고는 재당신라인이 개척해 놓은 기존의 교역망을 계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35) 권덕영, 앞의 책, 253쪽.

나라, 연안 항로를 이용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현해탄을 건너 일본 博多灣에 이를 수 있는 천연의 요새였다. 지리적 인접성과 더불어 일본내 사치품에 대한 수요 증대는 장보고 휘하의 신라 상인들이 훨씬 빈번하게 博多灣을 왕래하는 동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828년 청해진 설치를 계기로 장보고에 의해 조직·편성된 신라 상단이 가져간 진귀한 물품은 일본에서 대단히 인기가 높았는데, 경제력을 바탕으로 진귀한 박래품에 목말라 있던 일본 평안경 귀족들에게 사치품을 가득 싣고 수시로 오는 신라 상선은 그야말로 흠모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828년 동해 연안 지역에서 발해 사절과 민간 사이에서 교역이 성행하는 등 일본 국내에는 사무역의 성행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³⁶⁾ 이런 사정으로 인해 일본 조정은 장보고 상단과 민간의 교역 확대 행위를 통제·규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이는데, 태정관이 내린 ‘應檢領新羅人交關物事’라는 관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다) 듣는 바에 의하면 어리석은 인민들이 家財를 다해서 高價로 다두어 사들이니 물품은 고갈되고 가산을 탕진하는 폐가 생겼다. 외국 산물에 빠져들어 우리의 귀한 물건을 업신여기니 실로 이를 단속하지 않으면 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大宰府에 명하여 엄히 禁制를 시행하고 거래를 금해야 한다. (신라)상인이 내착하면 배에 적재된 물품 가운데 적당한 것(適用之物)을 골라 驛에 부쳐 進上케 한다. 이외의 물품(不適之色)은 府官이 조사하여 널리 교역케 한다. 그 가치의 귀천은 모두 估價에 의거한다. 만약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寬典에 따르지 않고 특별히 重科에 처한다.

天長8년 9월7일³⁷⁾

36) 일본연해안의 경우에도 但馬國에 내착한 발해 사절과의 사교역을 금지한 天長5년(828) 正月 2일 태정官符, ‘마땅히 교관을 금해야 할 사(應禁交關事)에는 “右 蕃客齋物私交關者 法有恒科 而此間之人 心愛遠物 爭以貿易. 宜嚴加禁制 莫令更然 若違之者 百姓決杖一百. 王臣家遣人買 禁使者言上. 國司阿容及自買, 殊處重科 不得違犯”’ (『類聚三代格』 卷18, 天長5년)라고 하여 大宰府에서 이뤄진 신라 상인과의 교역뿐 아니라 동해 연안 지역에서도 발해 사절과 민간 사이에서 교역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태정관부는 먼저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국의 귀한 물품은 멀리하고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까지 이국산 물품을 경쟁하듯 구매에 열을 올리는 등 사무역이 성행하는 폐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규제책으로 신라 상인이 도착한 장소에서 사교역을 엄하게 단속해서 쉽게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신라)상인이 도착하면 먼저 가져온 선내 화물을 조사하여 정부 수요에 적합한 ‘適用之物’은 먼저 선별해 京으로 보내도록 조치하고, 이외의 물품인 ‘不適用之色’에 대해서는 府의 관인이 檢察하여 민간에서 자유로이 교역하는 것을 허락하되, 반드시 估價(공정가격)에 따르도록 하고 위법자는 엄밀하게 처하도록 지시하였다.

9세기 들어 일본은 율령제가 이완되고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국가가 직접 주도하는 무역 정책은 더 이상 관철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장보고 휘하의 신라 상인의 교역 확대 행위를 통제·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역 실무를 현지 책임자인 大宰府에 위임하는 관리교역 형태로 정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일본 조정의 교역관리권이 후퇴하였음을 말해 준다.

장보고 휘하의 신라 상인이 가져온 화물을 둘러싼 실무관리를 大宰府의 관인이 담당하는 관리교역체제는 8세기 중엽에서 9세기 초에는 전혀 상정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교역 방법이다. 8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양국간 외교적 마찰을 야기하는 가운데 일본 조정은 檢校使를 大宰府로 파견하는 실무방식으로 신라와의 대외 교역을 행하였으며, 大宰府의 관인이 대외 교역에 직접 관여한 흔적은 없다. 따라서 관리교역에 관한 이해는 장보고 선단이 행한 대일교역의 형태와 성격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大宰府의 대외교역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는 율령격식 등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리고 이후의 교역관리체제에서 신라 상인이 실제로 어떤 절차와 규정에 의해 교역활동을 하였는지를 알려주는 사료도 거의 전하지 않는다. 大宰府의 관리체제에 대해 권덕영은 장보고 생전에

37) 『類聚三代格』卷18, 夷人俘并外蕃人事; 天長8년 9월 7일 太政官符「應檢領新羅人交關物事」

그러한 규제는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³⁸⁾ 그러나 838년 도 일한 당인 관련 기사 그리고 장보고 사후 교역 혼란을 둘러싼 단편적인 사료를 면밀히 검토하면 신라 상인을 대상으로 행한 관리교역의 실태는 어느 정도 구명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831년 관부를 계기로 정비된 일본의 교역관리체제에서 일본에 내항한 당인이 신고 온 화물은 현지 책임자인 大宰府 관인이 실제로 檢校-검사·선별 및 조정의 경진-를 實施한 기사가 전하고 있어 참고할만 하다. 『日本文德實錄』 仁壽元年(851) 藤原岳守傳에 보면 당인 沈道古 일행이 가지고 온 화물을 大宰少貳인 藤原岳守가 檢校한 다음의 사료가 전한다.

라) 仁壽元年(851) 봄 무렵 承和5년(838) 大宰少貳 藤原朝臣岳守가 唐人 沈古道가 가지고 온 貨物을 檢校하다가 元稹·白居易의 詩와 文章을 얻어 調整에 奏上하여 中5위상에 제수되었다.³⁹⁾

위의 기사는 838년 大宰少貳로 임명된 藤原朝臣岳守가 唐人 沈古道 일행이 가지고 온 ‘대당화물’을 檢校하고 元稹과 白居易의 시와 문장들을 얻어 仁明 調整에 주상하여 中5위상에 제수되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大宰少貳 藤原岳守가 행한 檢校는 831년 태정관부에 나오는 檢領에 근거한 것으로 ‘適用之物’의 簡定과 進上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831년 관부에는 ‘應檢領新羅交關事’라 하여 신라 상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이 시기 빈번하게 왕래하던 신라 상인이 신고 온 ‘화물’에 대해 大宰府의 檢校가 시행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본 문헌에 당인이라 지칭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는 신라

38) 권덕영, 앞의 책, 205쪽. 종래 장보고의 대일교역 방식에 대해 박남수는 768년 당시 집사성과 대재부간의 실무외교방식과 동일하며, 양자 모두 조공은 아니지만 조공에 준하는 교역 방식이었다고 보았다(박남수, 「8~9세기 한·중·일 교역과 장보고의 경제적 기반」 『대외문물교류연구』 4, 2006, 164쪽; 『한국고대의 동아시아교역사』, 주류성, 2011, 339쪽 재수록).

39) 『文德天皇實錄』 권3, 仁壽元年(851) 9월 乙未條 藤原岳守傳 “出爲大宰少貳, 因檢校大唐人貨物, 適得元白詩筆 進上, 帝甚耽悅, 授從5位上”

출신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중 위의 사료에 보이는 당인의 경우도 신라 상인일 가능성이 높다. 838년은 장보고가 청해진을 거점으로 하여 황해와 남해의 해상무역을 독점하고 있던 시기였다. 게다가 신라 상인들은 백거이의 시문이 나올 때마다 百金을 아끼지 않고 남김없이 구입해 갔다고 하는데,⁴⁰⁾ 838년의 당인이 일본에 가지고 간 물건 속에서 元稹과 白居易의 시문이 발견되었다.⁴¹⁾ 특히 관찬 사서의 경우 재당신라인을 당인으로 표기한 예가 많은데, 879년에 편찬한 관찬 사서인 『日本文德實錄』에 수록된 沈道古의 경우도 재당신라인을 당인으로 표기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청해진대사 장보고가 생존할 당시 일본인이 갈망하는 선진 문물을 싣고 오는 신라 상인은 외교시설에서 교역시설로 그 기능이 변화한 大宰府鴻臚館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⁴²⁾ 양국간 통상교역의 중요한 무대가 되었던 鴻臚館은 大宰府 관인이 선매권을 행사해 조정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정하는 檢校의 절차가 집행되는 會場으로 기능하였는데, 鴻臚館를 무대로 공적 성격을 띠는 교역을 일본 학계에서는 ‘鴻臚館貿易’이라 칭하고 있다.⁴³⁾

장보고 선단의 신라 상인이 博多灣 부근에 위치한 鴻臚館에 체류하는 동안 大宰府 관인이 선매권을 행사해 싣고 온 화물에 대한 검교의 절차

40) 元稹, 『元氏長慶集』 권51, 白氏長慶集序; 『舊唐書』 권166, 열전, 白居易; 『新唐書』 권119, 열전 白居易.

41) 권덕영, 앞의 책, 194쪽.

42) 大宰府鴻臚館 유적의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遺構를 I기에서 IV기로 유물을 I기에서 V기로 나누고 있는데, 9세기 전반에 비정되는 III기에서는 大型 瓦葺礎石建物遺構가 만들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일본에 온 신라 상인이 이용한 시설이었음을 뒷받침한다(田島公, 「大宰府鴻臚館の終焉」, 『日本史研究』 389, 1995, 26쪽; 石井正敏, 「다자이후 고로칸과 장보고 시대를 중심으로 한 일본 신라관계」, 『7~10세기 동아시아 문물교류의 제상』, 2008, 279~280쪽).

43) 근년에 일본 학계의 松原弘宣는 9세기 전반 신라인과의 관리교역은 인정하면서도 大宰府鴻臚館에서의 교역은 9세기 3·4반기 唐商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9세기 전반 신라인과의 관리교역에는 기본적으로 鴻臚館은 이용되지 않았다는 설을 제시하였다(松原弘宣, 「鴻臚館交易について」, 『愛媛大學法文學部論文集人文科學編』 10輯, 2001).

가 끝나면 나머지 화물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료에서 보듯이 大宰府의 관리하에 민간과의 교역활동을 자유로이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마) ① 내가 전에 大宰府講師兼 筑前國講師를 맡고 있을 때, 신라의 商客이 빈번하게 왕래해 왔다. 동원, 疊子 등을 가져왔다.(貨賚), 이 물품을 도량에 갖추기 위해 이들과 만나서 국가 講經用의 친시(불사를 위해 스님에게 준 물건)로 이를 매입하는 자가 있었다.⁴⁴⁾

② 장보고가 他臣으로서 감히 貢物을 바치는 것은 舊章을 살펴 보건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마땅히 갖추어 들이지 못하게 하고 조속히 돌려보내야 한다. (장보고) 사신이 가져온 물건은 원하는 대로 민간에서 교역하는 것을 허락한다. 단 인민들이 沽價를 어기거나 家資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⁴⁵⁾

사료 마)-①은 842년(承和9) 6년간 당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승려 惠雲이 쓴 『安祥寺伽藍緣起資財帳』의 내용인데, 혜운이 大宰府講師兼筑前國講師가 임명된 시기는 대개 833년(天長 10)으로 추정된다.⁴⁶⁾ 따라서 위의 “신라의 商客이 빈번하게 왕래해 왔다.”고 한 문구는 831년 관부의 내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 시기 관사선매권의 행사가 끝난 물품에 대해서는 부호층뿐만 아니라 혜운과 같은 승려도 동원·첩자 등을 구입해 도량에 구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 물품은 주로 신라의 귀족들과 민간 수공업자가 생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⁴⁷⁾ 이 시기 신라 상인이 취급한 품목에는 당물뿐 아니라 신라에서 생산된 물품도 혼재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4) 『安祥寺伽藍緣起資財帳』(『平安遺文』 권1); 『續群書類從』 卷193, 「入唐五家傳」 惠雲條 등에 의하면 혜운과 신라 상인과의 관계가 밀접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45) 『續日本後紀』 卷10, 承和8년(841) 2월 27日條 “太政官仰大宰府云, 新羅人張寶高去年十二月進馬鞍等, 寶高是爲他臣 敢輒致貢 稽之舊章 不合物宜 宜以禮防閑 早從返却 其隨身物者 任聽民間 令得交關. 但莫令人民違失沽價, 競傾家資. 亦加優恤 給程糧. 并依承前之例”

46) 石井正敏, 「九世紀の日本・唐・新羅 三國間日貿易について」, 『歴史と地理』 394, 1988, 2~4쪽.

47) 박남수, 『한국 고대, 목면과 향료의 바닷길』, 景仁文化社, 2016, 215쪽.

사료 마)-②는 840년 12월 청해진 대사 장보고의 사자가 내항했을 당시 태정관이 大宰府에 보낸 관부의 내용인데, 일본은 ‘爲人臣無境外之交也’라는 외교방침에 따라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다른 나라(신라)의 신하인 장보고가 일본에 조공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지만,⁴⁸⁾ 민간의 교역은 적정한 가격(沽價)을 엄수하여 거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적정한 가격(沽價)을 엄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정 수준 이상의 가격관리가 大宰府의 중요한 직책이었음을 말해 준다.

대체로 831년 관부를 계기로 장보고가 암살되는 841년까지 신라 상인은 大宰府의 관리하에 적정한 가격으로 관사선매와 민간의 교역을 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장보고 선단에 포섭되지 않은 신라 상인의 경우는 大宰府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고 壹岐·對馬島 등 博多灣 이외 지역에 까지 침투해 사무역을 행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⁴⁹⁾ 또한 장보고 사후 筑前國司 文室宮田麻呂가 회역사 李忠이 가져온 화물을 탈취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한다.⁵⁰⁾ 그러나 장보고 생존시 신라 상인과 민간의 교역활동에서 大宰府의 관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장보고가 841년 암살된 이후 교역의 혼란과 신라의 내분상태가 일본에 전해졌다.⁵¹⁾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大宰大貳 藤原朝臣衛는 신라인의

48) 장보고의 대일조공에 대한 연구 성과는 전미희, 「840년 장보고의 대일조공의 배경과 실체」, 『대외문물교류』 3, 2004, 70~71쪽 참조.

49) 『續日本後紀』 권3, 承和 2년(835) 3월 己未條, “大宰府言, 壹岐島遙居海中, 地勢隘狹, 人數寡少, 難支機急, 頃年新羅商人來窺不絶, 非置防人, 何備非常. 請令嶋嶠人三百三十人, 帶兵仗, 戌十四處要害埵, 許之”; 『類聚三代格』 권18, 承和 5년(838) 7월 25일 太政官符, “今新羅商人 往來不絶”; 『日本三代實錄』 貞觀 12년 2월 12일조, “新羅商船時時到彼, 縱託事買販 來爲侵暴”

50) 이병로, 「장보고와 혼야노 미야마로와의 교역에 관한 연구」, 『대외문물교류』 4, 2006 참조.

51) 장보고의 사망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異說이 있다. 『三國史記』에는 文聖王 8년(846)으로 되어 있고, 『三國遺事』에는 神武王 때인 839년으로, 『續日本後紀』에는 承和 8년(841)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장보고 시대의 기록인 『續日本後紀』와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문성왕 3년(841)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몇 개의 기록들이 보인다. 당대 사료에 근거해 학계에서는 장보고의 사망 연대를 841년으로 보고 있다.

입국금지를 조정에 요청하였다.⁵²⁾ 이러한 보고에 대해 太政官이 내린 ‘應放還入境新羅人事’에 보면 ‘신라인의 귀화는 일절 금지하는 대신에 신라 상인은 종래대로 내항을 인정하고 민간과의 교역은 허용하되, 다만 鴻臚館에 안치·공급은 행할 수 없다’는 文言이 있다.⁵³⁾ 이는 장보고 사후 신라 상인은 관사선매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관리무역의 會場인 鴻臚館에서 배제되었음을 말해 준다.⁵⁴⁾

대일교역의 주역이었던 신라인에 대한 기사는 장보고 사후 863년에 博多에 내착한 沙門光着 등이 내일·추방하기 까지 20여 년간에 걸쳐 한 건도 보이지 않는다.⁵⁵⁾ 대신 재당신라인이 동지나해 사단항로를 이용해 당·일간을 왕래하면서 교역에 종사하는 기사가 보이며, 860년대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당 상인의 일본 왕래가 사료에서 확인된다. 9세기 후반 이래 일본은 당 상인을 대상으로 관리교역체제를 본격적으로 완비하고 있는데, 이는 9세기 전반 장보고 휘하의 신라 상인을 대상으로 한 관리교역을 기본적으로 계승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⁵⁶⁾

52) 『續日本後紀』 권12, 承和 9년(842) 8월 壬戌朔 丙子.

53) 『類聚三代格』 권18, 夷人俘并外蕃人事 承和 9년(842) 8월 5일 太政官符「應放還入境新羅人事」

右 大宰大貳從4位上藤原朝臣衛奏狀稱, 新羅朝貢其來尙矣, 而起自聖武皇帝之代, 迄于聖朝, 不用舊例, 常懷杆心, 苞苴不貢, 寄事商賈, 窺國消息, 望請, 一切禁斷, 不入境內者, 右大臣宣, 奉 勅, 夫德澤洎遠, 外蕃歸化, 專禁入境, 事似不仁, 宜比流來, 宛粮放還, 商賈之輩飛帆來着, 所齎之物任聽民間, 令得廻易, 了即放還, 但不得安置鴻臚館以給食 承和9년(842) 8월 15日

54) 渡邊誠, 앞의 논문, 24쪽; 山崎雅稔, 「承和の變と大宰大貳藤原衛4起請」, 『歴史學研究』 751, 2001, 5~7쪽. 특히 山崎雅稔은 청해진 대사 장보고 휘하의 신라 상인이 무역을 독점하는 시기에 일본 大宰府에서 행한 무역 형태를 ‘清海鎮-鴻臚館貿易’이라 칭하였다.

55) 『日本三代實錄』 貞觀 5년(863) 4월 21日條.

56) 渡邊誠, 「平安中期 公貿易の取引形態と唐物使」, 『史學研究』 237, 2002; 田中史生, 「장보고이후의 국제교역과 다자이후」, 『7~10세기 동아시아 문물교류의 제상』, 해상왕 장보고국제공동연구논문집, 일본편, 2008.

I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9세기 전반 신라와 일본의 대외 교역은 공식 사절의 왕래에 수반되는 공무역이 단절되자, 신라의 민간 상인과 장남에 거점을 둔 재당 신라인들이 신라의 공식 사절을 대신해 北九州의 大宰府를 왕래하면서 교역을 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9세기 초 대외교역의 장인 大宰府를 무대로 이루어지는 양국간 교역은 의례로서의 교역이 아니라 상업적 성격을 띤 통상교역이라는 점에서 신라와 일본의 관계는 경제적 관계로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828년 청해진 설치를 계기로 일본은 장보고 선단의 교역 확대행위를 통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 조정은 적정가격으로 ‘官司先買와 민간교역’을 행하도록 하는 실무관리를 현지 책임자인 大宰府가 담당하는 관리교역체제로 정비하고 있는데, 당시 일본은 대외 교역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어느 정도 관철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개인에 의한 사무역이 자유로이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기왕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9세기 신라와 일본의 교역은 사무역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있다. 특히 장보고 선단이 주도한 대일교역활동에 대해서는 사무역의 범주로 인식하는 것이 학계의 매우 보편적인 견해이다.⁵⁷⁾ 이러한 선행 연구는 장보고의 교역활동에 있어 신라 정부와의 연결 관계 그리고 상대국의 무역관리 실태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장보고의 해상활동을 개인적 차원에서 부각시켜 파악하려 한 것이었다.⁵⁸⁾

57) 이기동 외, 『張保皋의 新研究-淸海鎮活動을 中心으로』, 완도문화원, 1985; 金文經, 『淸海鎮의 張保皋와 東亞細亞』, 향토문화진흥원, 1998; 이우진, 「8~9세기 동아시아 세계의 대외관계와 교역」, 『해상왕장보고의 국제무역활동과 물류』,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1; 윤재운, 『한국 고대무역사 연구』, 경인 문화사, 2006; 권덕영, 앞의 책, 2005; 榎本淳一, 『唐王朝と古代日本』, 吉川弘文館, 2008.

58) 이기동, 앞의 논문, 87쪽. 장보고가 신라 국왕의 권위에 의해서 일단 청해진에 대한 지배권을 보증받았다고 언급하였지만, 그 후 장보고의 활동은 신라 왕실과는 별개로 행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근년에 들어 신라 정부와의 연결 관계를 부각시켜 장보고의 대일 교역활동을 공식적 형태의 교역으로 보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⁵⁹⁾ 이 시기 활동한 신라 상인은 출항지의 公憑과 같은 공문서를 지참했을 가능성이 높는데, 842년 大宰府에 온 이소정이 일본측에 ‘文符’의 유무를 기준으로 장보고 잔당의 捕縛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⁶⁰⁾ 그러나 기왕의 신라의 대외교역을 공무역과 사무역으로 이분하여 이해하는 경우에 국가가 공인하거나 위임한 공무역의 개념이 존재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러한 단순한 이분법에서 벗어나 장보고 선단이 행한 대일 교역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역의 형태면에서 기존 연구 성과에서 간과하고 있던 상대국의 무역관리 실태에 대한 검토를 비롯해 교역의 분류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大宰府의 관리교역체제는 기왕의 공·사무역의 양분법에 매몰되어 있는 한계를 넘어 설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여태껏 방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역 형태인 관리교역은 장보고 선단이 행한 대일교역의 형태와 성격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교역의 형태와 관련해 장보고 선단이 大宰府에서 행한 交易의 성격 분류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21년 11월 14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59) 고경석, 「8~9세기 국제정세의 변화와 장보고의 대외교역」, 『장보고연구논총』, 2004, 54~55쪽; 박남수, 『한국고대의 동아시아 교역사』, 주류성, 2011, 291쪽.

60) 『續日本後紀』 권11, 承和9년(842) 正月 乙巳條.

참고문헌

- 『三國史記』 『舊唐書』 『新唐書』 『唐會要』 『樊川文集』
『續日本紀』 『續日本後紀』 『日本紀略』 『類聚三代格』 『日本後紀』 『安祥寺伽藍緣起財帳』(『平安遺文』 권1) 『入唐求法巡禮行記』
권덕영, 『재당 신라인사회 연구』, 일조각, 2005.
박남수, 『한국 고대의 동아시아 교역사』, 주류성, 2011.
박남수, 『한국 고대, 목면과 향료의 바닷길』, 景仁文化社, 2016.
윤재운, 『한국 고대 무역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6.
이기동 외, 『張保臯의 新研究-청해진 활동을 중심으로』, 완도문화원, 1985.
이성시 지음/김창석 옮김,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청년사, 1999.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편, 『7~10세기 동아시아 문물교류의 제상』, 해상왕장보고 기념사업회, 2008.
森克己, 『續日宋貿易の研究』, 國書刊行會, 1975.
田中史生, 『國際交易と古代日本』, 吉川弘文館, 2012.
渡邊誠, 『平安時代貿易管理制度の研究』, 思文閣出版, 2012.
고경석, 「장보고 세력의 경제적 기반과 신라 서남해 지역」, 『한국고대사연구』 39, 2005.
권덕영, 「재당 신라인의 대일본 무역활동」, 『한국고대사연구』 31, 2003.
권덕영, 「9세기 일본을 왕래한 이중국적 신라인」, 『한국사연구』 120, 2003.
민성규·최재수, 「당나라의 무역관리제도와 황해해상무역의 관리기구」, 김영근 편, 『해상왕 장보고의 국제무역활동과 물류』, 장보고 기념사업회, 2001.
박남수, 「8~9세기 한·중·일 교역과 장보고의 경제적 기반」, 『대의문물교류』 4, 2006.

이병로, 「9세기 環시나海무역권의 고찰-장보고와 對日交易을 중심으로」, 『일본학지』 15, 1995.
이병로, 「장보고와 혼야노 미야다마로와의 교역에 관한 연구」, 『대의문물교류연구』 4, 2006.
서윤희, 「淸海鎮大使 張保臯에 관한 연구-신라 왕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단

학보』 92, 2001.

조이옥, 「8세기 신라와 일본의 대재부 교역」, 『新羅史學報』 29, 2013.

조이옥, 「8~9세기 신라와 일본의 외교와 대재부 교역의 성격변화」, 『신라문화』 48, 2016.

山崎雅稔, 「承和の變と大宰大貳藤原衛4起請」, 『歴史學研究』 751, 2001.

石井正敏, 「八・九世紀の羅日關係」, 『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 吉川弘問館, 1987.

石井正敏, 「九世紀の日本・唐・新羅 三國間日貿易について」, 『歴史と地理』 394, 1988.

田中史生, 「承和前期後の國際貿易-張保臯・文田宮室宮麻呂・円仁とその周邊」, 『入唐求法巡禮行記』に關する文獻校定及基礎的研究』, 科研報告書, 2005.

田中史生, 「新羅人の交易活動と大宰府」, 『國際交易と古代日本』, 吉川弘文館, 2012.

林呈蓉, 「大宰府貿易の再檢討」, 『海事史研究』 47輯, 1990.

渡邊誠, 「承和・貞觀期の貿易政策と大宰府」, 『ヒストリア』 184, 大阪歴史學會, 2003;

渡邊誠, 『平安時代貿易管理制度の研究』, 思文出版社, 2012.

田島公, 「大宰府鴻臚館の終焉」, 『日本史研究』 389, 1995.

Abstract

Dazaihu trade between Silla and Japan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ninth century

Cho, lee-ok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rade with Japan by review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rade done by the Silla fleet represented by Chang po-go in the Dazaihu-managed trade system arranged in the wake of Daijokanbu of 831. Under the management trade system characterized by the exercise of preemption rights for foreigners and management of selling prices, the Chang po-go fleet's freight could be freely traded with civil merchants only after Dazaifu officials' inspection was completed. It is noteworthy that the trade method in which Dazaifu administered governmental management practices regarding trade with Silla merchants was a new type of trade and entirely different from the former methods.

In precedent studies, Chang po-go's trade with Japan was generally construed as private trade. However, Silla merchants' trade in Dazaihu ranging from 830s when the Chang po-go fleet was the most active to 841 when he died was a new type of trade and definitely different from the private trade which was not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The new type of trade, which was called Dazaihu-managed trade, is an important evidence suggesting that the Chang po-go fleet's trade with Japan can be classified as hav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trade.

keywords :

Silla merchants, Silla merchants in T'ang region, Dazaihu trade, Changpo-go, Cheonhaejin, Private trade, The right of preemption, Trade mangment stsyem